

부산한 예술생활 편집진 화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예술인 여러분. <알(Art)! 부산한 예술생활> 편집진 ‘화살표’입니다. 지난 부산한 예술생활 1호에서는 예술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다루어 보았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는 여러 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지역 모든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침서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꼭 챙겨야 할 복지 정보만 모았는데도 읽을거리가 부족한 1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1호가 알차긴 했지만, 주로 예술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보지였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호는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예술인의 생활을 다채롭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화살표 편집진 외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도 많이 모셔와 내용을 다채롭게 꾸렸습니다. 동료들과 만나 정보 교류나 협업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 불편하셨던 예술인들, 주로 작품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들의 생활을 자세히 알고 싶으셨던 독자들의 궁금증 모두 2호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술 분야별 소비 패턴’이나 ‘영감을 얻는 법’ 등 예술인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는 동시에 예술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예술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프로그램’, ‘예술인이 협력하는 법’ 등 동료 예술인들의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예술인의 타임테이블’, ‘예술인 쉼’처럼 예술인들의 생활감 있는 유쾌한 이야기도 많이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알! 부산한 예술생활>은 예술인들에게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독자들이 예술인과 편안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 이정표 역할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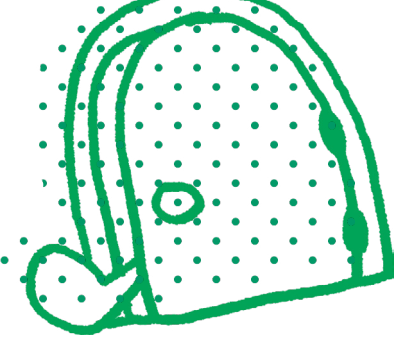


목차

That's Why...



GOOD
AND
GREAT



8

오프닝

예술인은 뭐 먹고 살아?

12 예술 분야별 소비 패턴

나를 위한 내돈내산 아이템

16 예술 작업 시 사용 도구, 프로그램

연필부터 애플펜슬까지

22 작업 영감을 얻는 방법

3인의 베테랑

28 연습 및 전시 등 공간정보

나에게 필요한 공간 찾아보기

32 예술인의 타임 테이블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는 법

40 예술인의 최애 콘텐츠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

46 예술인의 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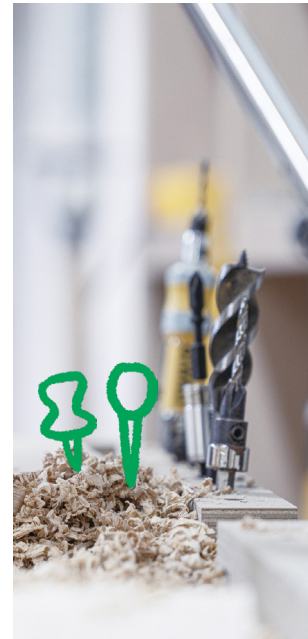
유쾌한 에피소드의 연속

48 예술인이 협력하는 방법

희망적인 조별과제를 꿈꾸며

50 엔딩

에디터 4인의 후기



가난한 예술가?

예술은 취미로만?



직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는 말로 예술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예술가하면 가난한 직종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예술을 하면 가난해진다, 평생 전업으로 할 수 없다 등 편견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편견들 때문인지 예술인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뭐 해서 먹고 살아?”이다. 이런 편견에 대해 예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등에 대해 ‘화살표’ 편집진들이 이야기해보았다.



Q1.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종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스스로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작가는 만든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돈 되면 다 한다고 답하긴 해요.
- 민경**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미술의 경우 디자인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전업 작가 생활을 해요. 근데 취직을 하면 작가 활동은 거의 못 하고, 전업 작가들은 아트페어나 갤러리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 알바 정도 하고 있죠.
- 혜린**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실례라고 생각해서인지 의외로 잘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정해진 급여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인지 같은 평범한 대화도 저와는 힘들죠.
- 효빈** 저도 비슷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요즘 일은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 같아요. 아니면 “그 일 하면 돈은 얼마나 받아?”라고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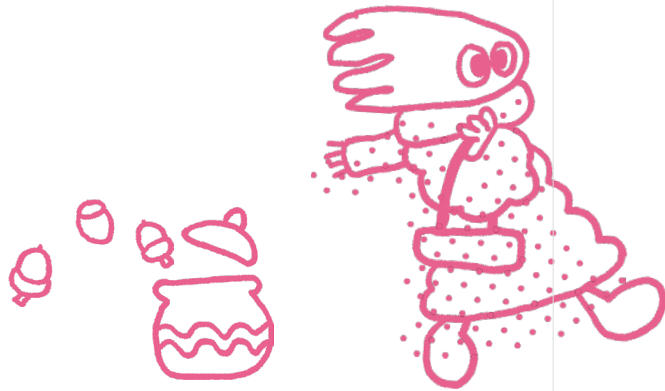
Q2. 예술인에게 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걸까요?

종후 사실 저희도 안 움직이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보기에는 느슨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너는 회사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거든요.

민경 예술인이 작업만 해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알바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없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경우가 많죠.

혜린 예술인의 생활을 짐작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이 쌓이면 승진하거나 연봉협상을 하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예술가는 시간이 흐른다고 반드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효빈 예술인이 사회인으로서 복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서면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나?’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Q3.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술인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종후 이 질문이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 문제니까. 예술인은 당장 다음 달에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걱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환기하는 느낌도 있죠.

민경 제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소득과 비례하지는 않으니 쓸쓸하기도 해요. 과거에도 예술가가 풍족하게 살았던 시대는 없었죠. 문제의식을 가져도 변화가 생기거나 할까,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혜린 성공한 소수를 빼놓고 대다수의 예술가는 여전히 고독하고 가난해요. 평생 치열하게 작업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예술가가 된다는 건 무모한 결정인 셈인데 그들이 왜 예술을 선택했는지,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에게 되묻게 되는 것 같아요.

효빈 저도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물음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질문은 늘 좋은 것 같아요.

Q4. “뭐 먹고 살아”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은 무엇인가요?

종후 나름 잘 먹고 잘 살아^^

민경 이것저것 해.

혜린 이슬 먹고 살아.ㅋ

효빈 좀 덜 먹고 살아.

예술인에게 소비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예술 활동 및 연습을 위한 공간 대여, 악기 유지 및 보수 등 다양하게 나뉘어요. 재료 구매는 어디서 하는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무엇인지, 자신만의 꿀팁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나보코프 단편전집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유혜린

동화, 소설을 쓰는 유혜린 작가입니다. pc로 글을 쓰다 보니 눈 건강과 바른 자세를 위한 소비가 많아요. 저는 주로 책을 사느라 많은 소비를 하는데 몇 권을 언제까지 읽겠다고 계획하며 읽는 편은 아니라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책을 사요. 한 번에 수십만 원짜리 전자책 시리즈를 살 때도 있고, 한동안 새 책을 사지 않고 평소 좋아하던 책만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어요. 글자를 많이 읽어서 눈이 침침할 때는 눈꺼풀 세정제를 사용해서 눈가에 낀 기름이나 먼지를 닦아 내요.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요. **블레파졸 눈꺼풀 세정제** 1만 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작가가 연필 대신 pc로 글을 쓰지만, 출판사와 원고

편집을 할 때는 종이 원고를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 원고가 디지털 원고보다 양쪽의 의견이 한눈에 잘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서,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수정할 부분을 표시한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읽어보고 서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지 정해요. 그렇게 여러 번 글을 고치는 작업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요.



박은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움직임 작업을 하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무용은 연습실이 필수적이라 홀대여료가 제법 들어가는 편이에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습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일요일에는 연습을 하지 않거나 공간대여 사이트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등 어플을 활용해서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실 대여료로 월 20만원정도 소비하고 교통비 월 20-25만원, 부상방지 혹은 치료비(병원비, 테이핑 테이프 등) 명목으로 20-30만원 정도 소비해요. 또 현대무용에서는 일상복을 의상으로 자주 활용해서 일상복을 의상으로 하면 10만원 안팎이고 맞춤복으로 하면 20-30만원정도 사용해요. 부산에 있는 많은 무용수들이 진시장에서 의상을 맞춰요.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근처 수선집에 맡기거나 예산이 넉넉할 경우에는 의상 전문점에 의뢰하는 편이에요.

박민경

실을 한올 한올 엮어서 미술 작업을 하는 타피스트리(Tapestry, 직조) 작가 박민경입니다. 현대미술의 한 장르인 타피스트리는 '실로 짜는 회화'라고 불립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타피스트리는 직조틀에 밀실을 걸어 놓고 작업을 해요. 요즘에는 직조, 직기 공방이 많이 생기고 섬유미술의 타피스트리, 터프팅 기법이 주목받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주로 모사, 면사, 아크릴사 등 실 재료와 팜플렛(도록), 리플렛, 엽서, 현수막 등 전시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재료는 주로 [서울 용현섬유\(02-2279-5149\)](tel:02-2279-5149)에서 전화로 주문하여 구입하는데 모사와 면사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문구재료는 부산의 남포동에 위치한 [세규문구화방\(부산 중구 해관로 39-1 1층, 051-463-1424\)](tel:051-463-1424)을 이용합니다.



보통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 어떤 전문 도구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같은 분야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에 따라 사용 도구가 다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예술 작업 및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구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영탁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김프리(김영탁)라고 합니다. 저는 소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제가 주로 작업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에이블톤 라이브 11'인데 최근 발매된 버전에는 음악 리듬에 랜덤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유롭게 변형을 해주는 형태인데 새로운 리듬과 패턴을 접할 수 있어서 신선해요. 검색하다 보면 가격차이가 나는데 standard 와 suite의 차이입니다. 기계의 사용법을 익히고 작곡만 하신다면 standard, 라이브 퍼포먼스와 좀 다양한 사운드를 사용하시고 싶다면 풀버전인 suite를 추천 드려요.



이진국

다양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진국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나무나 플라스틱을 다루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상당한 양의 먼지가 발생해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는 다양한 안전용품과 소모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한 제품은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기관지가 약한 작가분들께 필수적이며 그중 3M 방진 마스크를 추천해요. 목장갑 또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인데요 보통 근처 철물점에서 대량으로 구비해 놓는 편이며, 안전과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안전용품을 주로 소비하며 예술 작업을 진행합니다.

엄효빈

사라져서 애뜻한 작업을 하는 무용수 엄효빈입니다.



저는 리서치 작업을 할 때 브레인 스토밍 어플인 **마인드 노드**를 사용합니다. 기기로 작성하니 여기저기 메모 해 둔걸 찾을 필요도 없고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시각적으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공동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개인별로 브레인 스토밍을 해 와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의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보면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마인드 맵, 브레인 스토밍 무료 어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편리하고 디자인도 예쁜, 자신만의 어플을 찾는 것도 재미가 쏠쏠 합니다.



심종후

목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 심종후입니다.

아트-퍼니처 작업을 전개하기에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목공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다루기도 하고, 유용하게 사용 중이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공구는 **쏘-스톱(Saw stop) 테이블 쏘입**니다. 작업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모델인 만큼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작업을 할 때 정말 위험한 순간들에 많이 직면하는데 사람의 손이나, 전극이 닿으면 0.005초 만에 톱날이 정지해서 부상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안전이 제일이죠!





길을 걷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의 경험이 있나요? 특별한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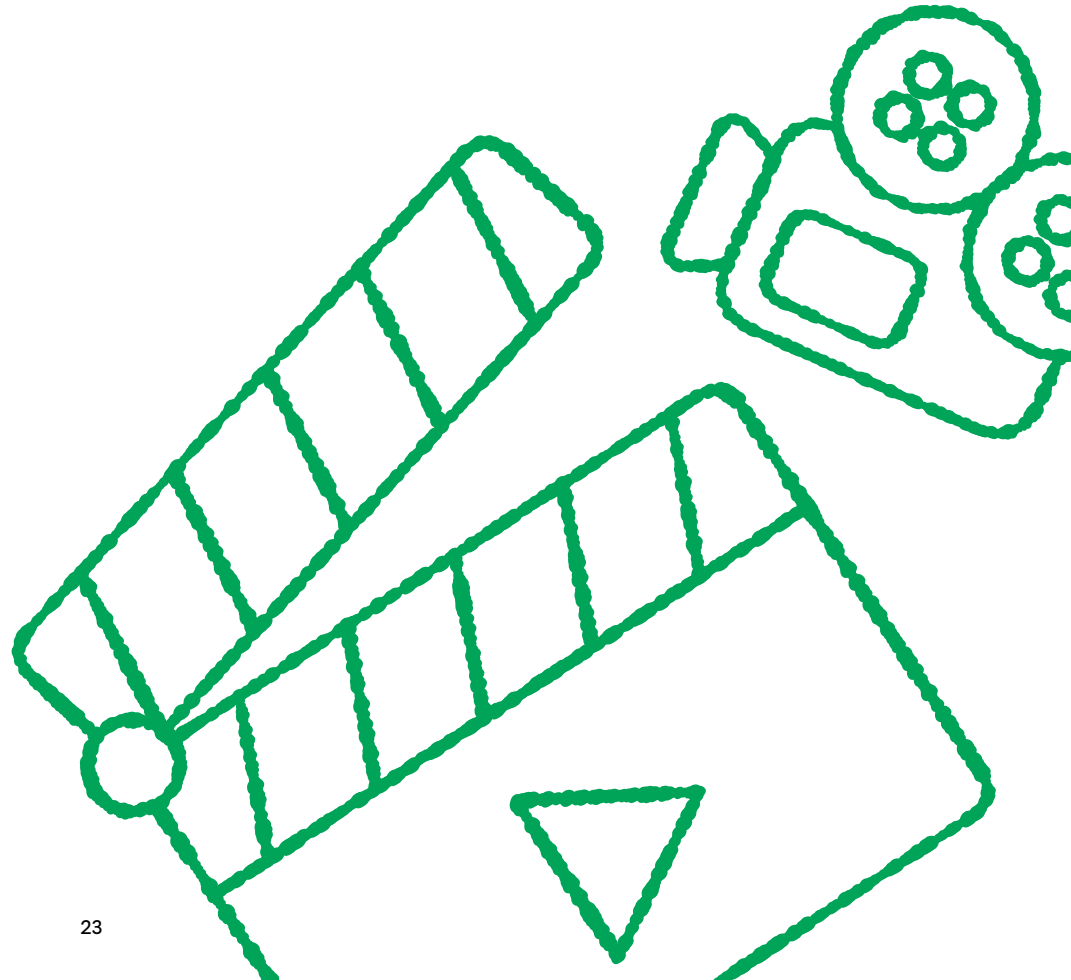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을까요? 화살표 편집진 외에 각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3인의 예술인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이정우

영화, 영상 작업을 하는 영화 프로듀서 이정우입니다. 부산에서 독립 장편영화 기획 및 제작을 하고,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국제필름비즈니스 과정 수료 후, 많은 아세안 지역 영화인들과의 협업도 기획해요. 영상 작업은 이미지를 합쳐 서사를 만드는 일이라 시각 예술에서 다양한 영감을 받아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아무 정보 없이 가서 전시된 그림, 조각, 설치 작품 감상을 합니다.

다음 작품의 톤과 매너, 구도나 프레임, 혹은 주제나 분위기 등과 연결점이 있는지 스스로 묻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보며 다양한 피사체, 분위기, 스타일을 포착한 후 작품의 앵글이나 구도, 조명을 연구하거나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 분석도 하죠.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더 넓은 시각과 새로운 상상력을 창작, 기획, 제작을 위한 재료로 활용합니다.



박소산

우리 전통 춤인 동래학춤의 명인이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활동도 병행하는 전업 예술인 박소산입니다. 자연과 생명, 평화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지역색과 역사적 배경을 살려 춤을 추거나 공연을 연출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영감을 얻는 주된 매개체는 그림인데, 화폭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너머의 것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편이지요. 작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부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할까 상상하는 것이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자연과 생명에 관련된 그림을 자주 감상하는 편인데, 영감의 뿌리가 자연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의 화폭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기운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곤 합니다. 자연의 생명력과 역동성이야말로 곧 신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오) 박소산 명인



연극 연출가

주혜자

부산에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는 주혜자입니다. 간간히 희곡도 쓰고 축제 기획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다양한 모임들에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스몰토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눈 대화를 복기하다보면 재미있는 상상들이 생겨나죠. 순간의 진실이랄까요. 사람들의 순간적인 생각과 행위, 반응, 말 속에 숨어있는 서브텍스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황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와는 달리 이 시대를 함께 지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유대감과 애정을 되살려줍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와 이슈, 시선과 관점에서 질문이 생기고 그것이 대화와 기록, 연상을 통한 영감으로 이어지고요. 좀 더 영속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을 향한 열망이 주변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또 영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문인 것 같아요.

(왼) 주혜자 연출가



작업영감을 얻는 방법

· 나에게 필요한 공간 찾아보기 ·

“재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곳”

“전시를 할 수 있는 곳”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연습할 수 있는 곳”

공간

예술인으로 지내면서 겪는 고충 중 하나는 ‘공간’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화를 하다보면 작업실, 연습실, 문화 공간에 대한 화제로 이어지기 마련. 각자의 개인 공간에서 작업이나 연습을 진행하겠지만, 프로젝트나 작품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예술 활동은 천차만별이다. 재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곳, 혹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곳, 공연을 볼 수 있는 곳과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공연 및 연습공간

✦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부산문화재단연습실 #저렴한 가격 #다양한프로그램



✦ 금정회관 / 금정문화회관

부산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
#문화회관 #다양한시설 #문화강좌



✦ 수영문화원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이달의행사 #광안리바로앞 #문화사업



✦ 부산시민회관

부산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넓직한공간 #오랜역사와전통 #다양한연극



갤러리 및 전시 공간

✦ 조현화랑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71
#대형전시 #달맞이길전시 #고급스러운분위기



✦ 제이무브먼트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5번길 101
#월요일휴관 #무료관람 #넓은공간



✦ 아난티코브 갤러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268-31
#다양한멀티문화공간 #목요일 휴관 #미디어갤러리



✦ 고은사진 미술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52번길 16
#다양한사진전시 #데이트코스 #해운대



✦ 공간 힘

부산시 수영구 수미로50번가길 3
#워크숍 #비영리예술공간 #사회비평적전시



✦ 전시공간 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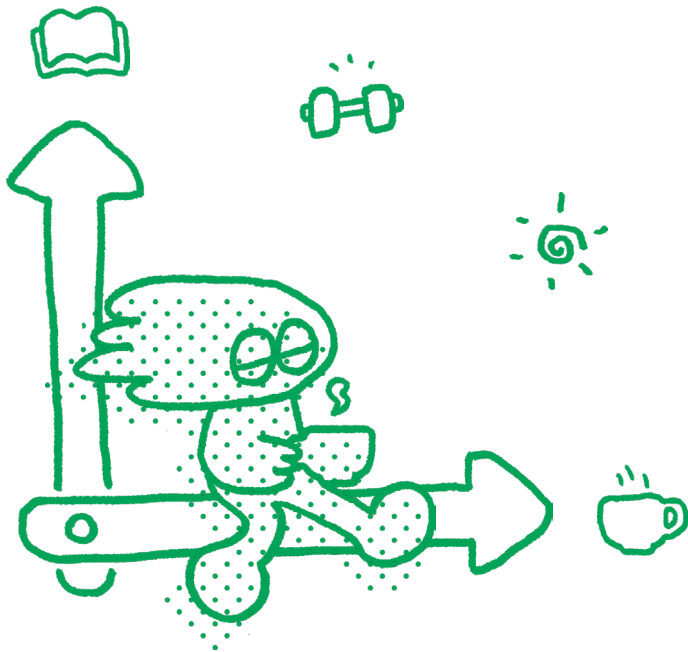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5 지하1층
#캐주얼한분위기 #전시공간 #화이트월



TIME FOR ME

활기찬 오후에 작업이 잘 되는 사람과 고요한 새벽에 작업이 더 잘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각자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예술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상생활과 예술활동을 병행하는 생활예술인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서로 몰랐던 예술인들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삶의 자취를 함께 공유해봅시다.



주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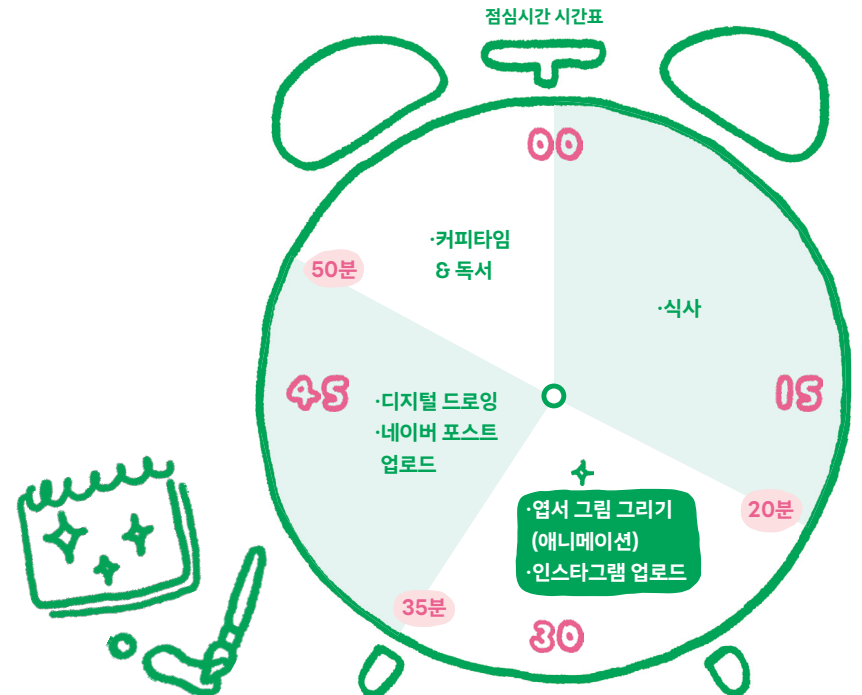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수경입니다. 저는 예술을 전공했지만, 바쁜 직장생활에 자연스레 예술과 멀어져 항상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 권한이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해요.

또 출근 시간 10분 정도 지하철 안에서 글을 써요. '조금 적어도 좋아'라는 글쓰기 커뮤니티인데 에세이, 소설, 시 등을 9주 동안 조금씩 작성하여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참여비는 10만원대인데 소장 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져 뿌듯해요. 저 같은 바쁜 직장인도 틈틈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 적어도 좋아 웹사이트



✦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애니메이션에 고양이 나오는 장면 혹은 꽃, 길고양이를 사진 찍어서 엽서 크기의 종이에 그려요. 저는 파스넷이 손에 묻지 않고 좋더라고요. 시간이 많을 때는 물 붓펜으로 수채화도 해요. 백일 동안 백 장(엽서) 그리기를 끝내고, 요즘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작업하여 네이버 포스트에 업로드해요. 기계에 친숙하지 않은 제가 사용하기에도 간편 하더라고요. 추천드려요!



✦ 혹시 점심시간에 다른 일이 생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에게 그림 그리기는 필수 루틴이에요. 한번은 점심시간에 단체 회식을 해서 그림을 못 그려 당황했어요.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여유분 두 장 정도 그려놔요. 업로드만 할 수 있게요.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매일 하는 나의 루틴을 못했을 때 허전하거든요.

✦ 매일 짬을 내서 창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소소한 제 만족을 위해 하는 것 같아요. 미술 수업에서 알게 된 예술인 분이 제 인스타를 매일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그 하트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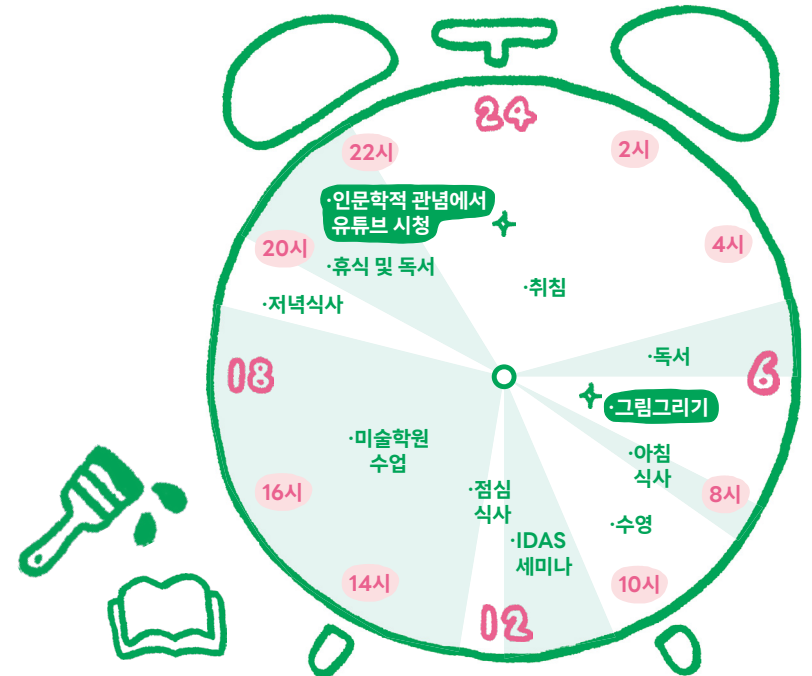
김소희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IDAS)에서 아동미술을 공부하고 현재 아동미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동미술에 관심이 많아 최근에는 **동화작가**라는 새로운 꿈이 생겨 문학과 인물을 공부 중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은 무궁무진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같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여 개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복잡하면 집 근처 맥도날드로 향해요. 2층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또 EBS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챙겨봐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주제가 많고 **철학적인 내용**이라 시선이 넓어져서 좋더라고요.



✦ 소모품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곳에서 지출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에 제출할 그림을 준비하면서 물감, 붓, 수채화 전문 책을 구매했어요. 저는 집이랑 가까운 부산대 지성문구를 이용해요. 그리고 **클래스 101**을 통해 정보를 얻어요. 1년 구독 비용 199,000원에 미술, 공예, 음악, 재테크, 운동, 요리, 블로그 쓰는 방법 등 다양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동화작가가 되기 위해서 인물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간편하게 제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예요.



클래스 101 주소

서승우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서승우입니다. 처음에는 **오카리나 동아리**에서 취미로 시작했어요. 2017년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 연주자로서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 활동 중이에요. 구청에 우수동아리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4번 정도 공연을 다녔어요. 동아리 연합 발표회도 나가고 노인정이나 길거리 공연을 해요. 예술 활동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듣는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람차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공연하면 큰 에너지를 얻어간답니다.

✦ 동아리 활동이지만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 사례가 있을까요?

동아리 회비로 연습실 대여와 **'노블 오카리나'** 사이트에서 악보를 구매해요. 중주곡은 파트당 하나씩 구매해서 보통 2만원 정도 들어요. 코로나 기간에 연주 활동이 어려워져 도약닷컴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오카리나 고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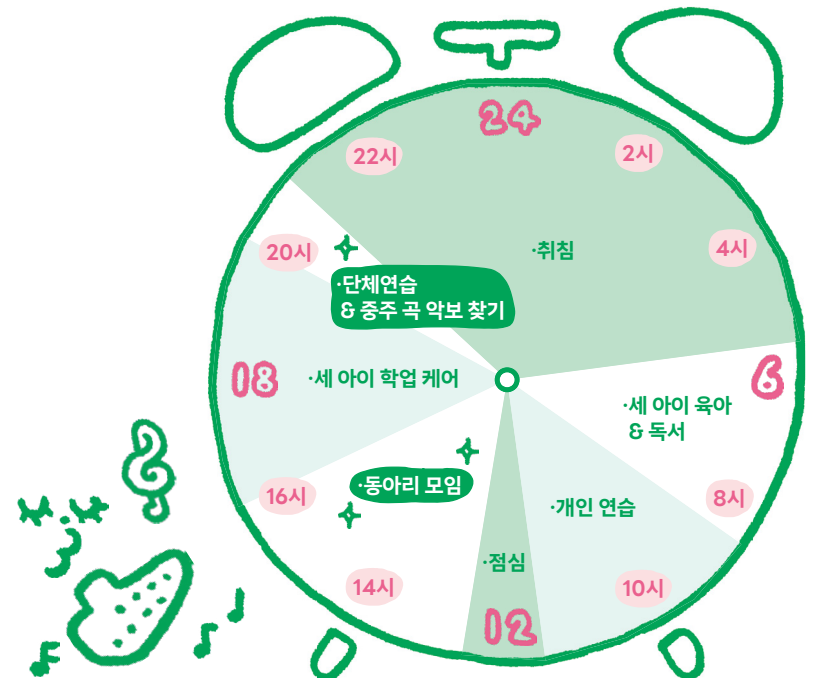
자격증은 4만원에 지정곡 2곡 준비하면 돼요. 저는 3개월 걸렸어요. 덕분에 동아리 내에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노블오카리나 웹사이트

✦ 공연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궁금합니다.

연주복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한번은 부산진시장에서 핫핑크로 단체복을 맞췄어요. 막상 단체로 입으니 너무 튀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그 옷은 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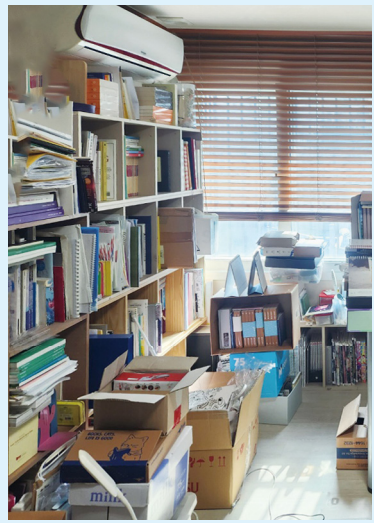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독자 참여이벤트 후기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51페이지 하단 참고

자신의 하루, 루틴을 소개하고 싶은 예술인들을 만나서 대담을 진행하고 소정의 상품으로 정리수납이용권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주수경, 김소희 선생님의 솔직한 후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앞으로도 <알!부산한 예술생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수경

방안에 책이 한가득하셔서 줌기도 하고 꺼내기도 힘들었던 공간을 서재로 만들어 주시고 공간도 넓혀주셔서 즐거운 방콕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정리되고 분리되면서 책들을 손쉽게 꺼내기도 좋아요.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선생님들과 정리 수납업체 공간 나들목 김경령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전



정리 후

김소희

부산문화재단에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미술학원이 예쁘게 정리되었어요. 김경령 대표님(공간나들목)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술학원 즐겁고 행복하게 쓰겠습니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선생님들도 좋은 만남을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전



정리 후

예술인들은 어떤 책·음악 등을
즐기며 살고 있나요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 각자의 취향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알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지요. 예술인이라고 해서 꼭 자기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만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각 분야의 예술인들은 어디에서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찾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최애 콘텐츠를 한번 들여다 볼까합니다.



신나리

좋아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은 같을 때도, 달랐을 때도 있었어요. 십대에는 A.J.크로닌과 박경리 작가의 모든 작품을 찾아 읽었고 이십대 때는 쉬는 날마다 연극을 보고 양방언의 음악을 들었어요. 영화를 하면서부터는 어떤 공간에 있었으나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작품을 통해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장의사, 사진작가, 강제동원피해자, 화가, 타피스트리 작가, 시니어모델, 역사학자, 재일교포, 기장일광 광산마을, 아시오 광산, 아키타. 이 키워드들은 한계 없이 자료 조사를 원없이 했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작업을 이어나갔죠. 예를 들어 사진가를 담은 「SEPTEMBER」 라는 작업은 롤랑바르트의 작품이, 「녹」과 「뻐」는 논문과 일본자료가 그랬어요. 다큐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쌓여 온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영화를 저돌적으로 하던 저에게 끌리는 콘텐츠란 결국 당시 하고 있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영화를 몸 챙겨가며 쉬엄쉬엄하려는 지금의 나에게 가장 끌리는 것은 어설프지만 직접 뚱뚱뚱뚱 건반을 눌러서 듣는 피아노 소리와 바이엘 악보랍니다.



허경미

딱히 최애 콘텐츠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평소에 여유시간이 생기면 유튜브를 통해 법상스님이나, 법륜스님의 법문을 듣는 편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정리해 보니 저는 콘텐츠를 통해 채우기보다 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책도 소설보다 교양서적 같은 객관적이고 건조한 책들을 좋아해요. 음악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를 가끔 무한 반복해서 들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2년 전 공연음악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즐겨듣게 되었죠. ‘아베마리아’ 외에는 다른 가사가 전혀 없어 듣기 편해요. 또 다른 이유는 가까운 분을 떠나보낸 시기에 이 음악을 우연히 들은 순간 큰 위로를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섬유예술가

문혜정

때때로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뻗치는거 같아요. 여건상 그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가장 만만하게 찾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곳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책들이 분류·저장되어 있고 책에는 알고 싶은 분야의 정수만이 모여 있어요. 지난해에는 나보코프의 단편집 중 한 줄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 두 점을 완성했습니다. 글에서 얻는 상상과 사고를 시각화하는 작업은 작가로서 온전히 내 것의 독창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인거 같아요. 그림은 도록보다는 전시장에서 감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음악도 자주는 아니지만 직접 연주회를 들으러 가는 게 좋아요. 남들은 노동요를 틀어놓고 길고 고된 작업을 이어나간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안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를 먹는 것도 힘들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것도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 하나 싶어요...
참, 코로나 이후 **여행 유튜브**를 자주 봐요. 이국적인 멋진 풍광을 보면서 언젠가 그곳에서 작업하는 내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문선희

애정하는 분야가 워낙 많아 고르기 힘들지만 요즘 최애 콘텐츠를 꼽자면 유튜브 영상 채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영상만큼 좋은 게 없다 싶어요.

또 여행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보며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가슴 설레는 일이죠. 영화는 공포영화 외에 딱히 가리는

건 없고, 책은 교양서적보다는 소설을 좋아해요.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 다른 생각과 상상을 한다는 것이 흥미로워요. 음악은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재즈음악을 듣는 편이에요. 최근 한 공연에서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대중가요를 블루스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고 디즈니영화의 OST 등을 재즈로 편곡하여 불렀는데 그 교감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나의 예술활동과 더불어 삶도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는답니다.



예술인에 대한 편견,
주변 시선에 관한 재밌는 일화,
많이 받는 질문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회화
조과량
가명

“한국화 전공인지 몰랐어요”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제 작품을 보고 하는 말이랑기보다 제 평소 스타일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화 전공한 사람은 차분한 스타일에 행동도 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소는 힘이 세고 왈가닥일 것 같다는 이미지, 서양화는 여러여리한 체구에 한소희 배우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여리한 친구들이 서양화에 비교적 많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럴 수 있겠다 하죠.

영상
김기석

몇 년 전에 부산과학관 야외 상영부스에서 작품 상영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오신 아버님 한 분이 보시고 나가는 길에 “뿔 백남준 같은 거네”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내 작품이 세계적인 예술가와 비교된다는 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관객은 자신이 아는 예술가를 기준 삼아서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
엄효빈

친한 친구한테 “언제까지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거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은 적 있어요. 사회인 아니 성인으로도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이랄까?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만족감이 크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시면서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을 예술가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투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덜 먹고 삽니다’, ‘즐기면서 합니다’ 말고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좀 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을 해서 예술이 얼마나 재밌고 안전한 곳인지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문화기획
이대환

예술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기획자라는 포지션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통은 연극이나 무용, 영화 등등 자신의 영역을 장르로 설명하는데 제가 일하는 문화기획은 다소 복합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지역활동가로 인식하거나 어떤 사람은 단순히 공연기획자로 인식하기도 해요. 저도 때로는 설명이 어려워서 “그냥 알겠거려요” 라고 답할 때도 있어요. 문화기획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도 있고 예술을 설명하는 단어가 다양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협업의 어려움이다. 협업의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협업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협업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협업은 다른 장르의 사람이 모여 새로운 시도 혹은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춤이나 공연을 만드는 경우 음악가 또는 공연장에 관련된 작업자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이죠.

협업자를 어디서 찾을까?

내가 원하는 협업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를 찾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통해 협업의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를 서칭하거나,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배우·모델이 포트폴리오 촬영작가를 구하거나, 무용수가 작곡가를 찾는 경우처럼 서로의 니즈가 맞는 경우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구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협업의 시작

보통 섭외의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섭외하거나, 직접 만나서 협업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이나 문자같은 문서로 정리된 개요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프로젝트를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간은 언제까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보수는 얼마인지까지 기재하여 전달하는거죠. 협업을 요청하든, 요청 받았든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많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으로 빠트리지 않도록 합시다!

상호이해의 문제

서로 무엇을 원하는 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되죠. 특히 협업을 계기로 처음 만난 경우, 이전에 해왔던

창작자들의 기술적 구현을 도와주는 역할로 영상과 기술이 필요한 시각·공연예술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김기석(미디어설치 작가)

방식과 이해들은 내려놓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작업을 대하는 태도, 작업에 임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협업자는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즐거움이 중요한 반면, 어떤 협업자는 결과물의 완성도 역시 중요하며 이를 위한 치열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깐요. 또한 타 장르 간의 협업의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은 처음 만나 공동의 작업을 만들어가는 작업자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서로에 대한 장르적, 매체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존중의 태도로 협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더 나은 협업의 방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주한 협업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만족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특성이 주는 생경함 일 수도 있을테요. 다른 장르 간에 융합이 이루어져 더 높은 완성도를 얻는 것은 한번의 과정으로 얻을 수 없어요.

더 나은 협업을 위해

자본력이 있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표현을 구현해줄 크리에이티브 협업팀을 직접 구축하고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촬영장에 나오는 할리우드 촬영감독이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요.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감독이 있는 촬영장은 어떤 분위기일까?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어도 후에 행복한 추억이 될테니 항상 즐겁게 일하려고 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박민경



<알! 부산한 예술생활> 안내서를 만들면서 부산 지역의 작가님들로 구성된 편집진, 그 외 여러 예술인들을 취재하면서 작가들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가님들과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 행운이었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 만큼 기쁜 일이었어요. 이 지침서가 정보의 부족과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예술인들의 생활이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혜린



저는 몇 년 전 봄, 치과에 가다 우연히 온천장 역 지하철 광고를 보고 예술활동증명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창작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볼수록 생각보다 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 혜택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치과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술인 복지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면 여러 혜택들을 많이 놓쳤을 것입니다. 우연히 본 광고 하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알! 부산한 예술생활’ 만들기를 도왔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많은 사람이 ‘알! 부산한 예술생활’을 읽으며 도움 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한 예술생활 편집진 화살표 엮었습니다.



엄호빈



우리는 그동안 배낭 가득 화살표 스티커를 챙겨 복지로 향하는 길과 예술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골목골목에 화살표를 붙여 나갔어요. 1호 복지 편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지나쳤던 서로의 권리에 화살표를 꼭, 2호 생활 편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소소한 팁들에 화살표를 꼭꼭 붙이며 지금 이곳에 도착했어요. 2호가 마무리된 지금, 많은 정보에 흥미를 잃지는 않았는지 화살표가 생각보다 작아서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지만 안내서가 필요한 어떤 순간에 우리가 붙인 화살표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종우



몸으로, 발로 뛰는 예술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글을 다루기는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번 호는 좀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룰 수 있어 재미있었는데 예술인으로서 우리에게겐 평범한 일상의 것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히게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은 무얼 하며 지낼까? 하는 예술인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음... ‘재미있는 유튜브 시청’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예술지원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bscfcenter@bscf.or.kr T. 051-745-7276 F. 051-744-7708
기획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및 편집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예술지원팀) 팀장 송수경, 팀원 유승애, 김희선, 최서원
편집진	박민경 심종후 엄효빈 유혜린 유승애 허장윤
디자인	박소정 최서윤
사진	전광현
인쇄	선은종합인쇄

